2026년까지 공공분양 등 7000호 공급

공공분양 2100호·공공 임대주택 4900호 등 포함
민선8기 주거복지 '임대'→'분양주택'으로 확대
부동산시장 상황·주택 수요 등 감안해 탄력 공급

제주자치도가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이 주관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 주택' 2100호와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4900호를 포함한다.

제주도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선8기 도정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중심에서 '분양주택'으로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도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며, 특히 공공주택 공급은 원도심 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청년·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 등 기준에 따라 4가지 모델이 구상됐다.

우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600호가 공급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한다는 계획으로,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제주시 원도심 지역 토지매입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공유지 건립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원가주택은 500호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6년 분양전환형 주택은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로 200호 공급을 계획 중이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나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은 통해선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800호를 제공하는데, 주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도는 민간분양주택 수준 이상인 자재와 품질을 고려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건립한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주택 구입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3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해 총 4900호를 공급한다.

국민·영구·행복주택 유형별 입주대상·자격을 통합 공급하는 모델인 '통합공공공임대'를 통해선 면적(60→85㎡)과 입주 계층을 확대해 3430호를 공급한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고령자 친화형(65세 이상) 임대주택 복합설치 공급과 정부 지원을 통해 총 420호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한다. 강다혜기자

농식품 현황 데이터 현행화해 제공

도, 농산물 생산지역 등 12개 항목 정보 정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관 및 부서별로 관리되는 농식품 현황 데이터를 현행화해 공공데이터로 정비하고 이달중 농업인과 도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3800만 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생산지역 정보 현황 등 12개 항목의 정보 50만 6317건을 농업인과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정비된 공공데이터는 최종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시켜 농업인·소비자·기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 현황자료에는 연도별·권역별 자연재해 현황을 포함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비료생산업체 ▷농산물 가공시설 ▷농산물 세척시설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정보 ▷친환경농산물 수요시설 ▷친환경농산물 수요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판매처 ▷향토음식업소 지정현황 등의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급기업((주)인포마인드)에서 제주지역 청년 13명을 채용(인턴십)해 데이터처리 실무교육과 함께 데이터관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인수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은 태풍 등 자연재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적인 영농 정보를 제공받고, 소비자는 농산물(친환경) 재배지역·판매처 정보로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입학금 면제·수업료 감면

서귀포시·열린사이버대 협약

서귀포시가 시민들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사이버대학과의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 결실을 맺고 있다.

시는 1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서귀포시민 할인혜택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서귀포시민은 입학금 전액, 수업료는 30~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가장학금 수령시에는 학기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은 졸업시 종합미용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뷰티건강디자인학과를 비롯해 인공지능융합학과,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자연숲치유학과 등 12개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우수 사이버대학과의 협약을 시작, 사이버대학 7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시민 168명이 신·편입으로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백금탁기자

감귤원 방풍수 절단 밑동 정비로 일원화

예산 대폭 늘어 18억 책정
보조율 60→90% 상향 조정
서귀포시, 6만본 밑동 절단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감귤원 밑동 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절단 방법을 일원화한다.

삼나무 등 감귤과수원 방풍수 정비와 관련, 서귀포시가 내년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그동안 농가에서 선택했던 밑동·중동 절단 방법도 밑동 절단으로 일원화 한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3년도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비는 20억원(자부담 10% 포함)으로 올해 3억원보다 17억원 높게 책정했다.

이처럼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농가에서 신청량은 많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율은 3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올해 1억8000만원을 들여 149농가·1만455본에 대한 예산을 농가에 지원했다. 자부담이 1억2000만원에 이르고 지원 규모는 농가에서의 요청량의 34% 수준이다.

이에 시는 내년 예산 18억원을 투입해 방풍수 6만본에 대한 정비사업에 나선다. 1본당 처리비용은 밑동절단 2만1000원과 파쇄비 1만2000원 등 3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방풍수에 의한 햇빛 투과 감소, 양분 경합 등 감귤 생육 불량 환경 개선, 동절기 냉기 체류에 의한 냉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울러 삼나무 꽃가루 비산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등 질환 유발의 원인을 없애 농업인은 물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백금탁기자

김녕·하모지구 침수 대응사업 추진

도, 508억 투입 배수펌프장 신설·배수암거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환경부의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태풍과 폭우 시 상습 침수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508억 원(국비 60%)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11월 중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위원회를 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5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제주 2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38개 지역을 선정했다.

환경부장관은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는 8월말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지역, 우천 시 반복적으로 도시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함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국가재난 안전관리시스템(NDMS) 분석을 통해 김녕지구와 하모지구를 도시침수 대응사업 지구로 환경부에 추가 신청했다.

구좌읍 김녕지구(0.61㎢)에는 배수암거 정비 5.3㎞, 배수펌프장 1개소 등 사업비 289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모지구(1.89㎢)에 대해서는 배수암거 정비 4.6㎞, 배수암거 신설 3.3㎞ 등 사업비 218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상하수도본부는 2023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정비대책 수립과 사업 물량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환경부 국비지원을 통해 2028년까지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